■ 르 포 – 국내 최대 소금밭 신안 증도 태평염전

"신토불이 '웰빙 소금'이 최고지라"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대표 손일선)에 소금 꽃이 피었다. 8월의 뙤약볕에 간쟁이(염부·鹽夫)들은 마지막 땀방울까지 쥐어짜고 있다. 지난해 여름 1만4천t의 소금을 거뒀지만, 올해는 잦은 비로 생산량이 9천t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저물어가는 해가 야속하기만 하다.

지난 23일 오후,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서 염부들이 '대패질'을 하면서 소금을 한곳으로 모으고 있다. 긴 장마와 기습폭우로 한때 작업을 중단했던 염전은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신안 증도=최현배기자 choi@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40년 경력의 장만석(59) 반장이 관리하는 결정지(結晶池)에 10여 명의 염부들이 모였다. 이날 오전 6시에 결정지에 앉힌 물은 바닷물을 담아두는 저수지(貯水池·염도 1~3%), 24개의 방(칸)으로 된 제1증발지(蒸發池·난치·〃 3~8%)와 제2증발지(누태·〃 8~18%)에서 22일을 보낸 바닷물이다.

결정지에서는 염도가 30%가 되면 흰 꽃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8월 강한 햇빛 아래서는 당일 '수확'이 가능하다. 장씨는 염도(82~89%)가 적당한지를 살펴 소금을 한쪽으로 모으는 '대패질'을 지시했다. 염도측정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순전히 경험과 직감에 따라 소금을 걷어낸다.

"여름에는 30일 정도 일해야 하는데 올해는 비가 많아 고작 20일밖에 일하지 못했소. 최근 폭우와 소나기가 잦아 증발지 물이 비에 섞이지 않도록 비막이 지붕이 있는 '해주'(海住·물구덩이)로 옮기는 일이 가장 큰 고역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물을 담고 옮기고, 갯벌을 다지는 등 쉴 틈 없었지만 장씨의 판(염전발·3만9천㎡)에서 수확한 소금은 고작 100여 포대였다.

지난 1970년대 1억2천만㎡ 에 달했던 국내 염전은 소금 수입과 염전 구조조정으로 4천700만㎡ 줄었고, 최근에는 저가 중국산과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30㎏ 포대당 국내 천일염은 1만2천원선이지만 중국산은 4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가 중국산 공습 품질로 넘어야제"

폐염전 심은 '퉁퉁마디' 소득 효자로

하지만 '태평염전'은 전기 투석으로 만드는 기계염(염도 99% 이상)과 중국산(〃 85~90%)에 비해 품질이 좋아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는 9월이면 근대문화 유산으로 등록될 예정이어서 가슴 뿌듯하다.

특히 염전 곳곳에 자라는 염생식물(鹽生植物)인 '퉁퉁마디'(일명 함초.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 키 10~30㎝. 녹색이며 가을에는 붉은 빛을 띤 자주색이 된다)가 당뇨·신장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짭짤한 돈을 벌어주고 있다. '태평염전'은 염부가 없어 놀리고 있는 33만580㎡의 폐염전에 '퉁퉁마디'를 심고, 인근에는 염생식물 박물관도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에만 '퉁퉁마디' 600t을 생산해 1억1천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염생식물 '퉁퉁마디'

장 반장은 "염전 일은 막노동보다 힘든 일이어서 70년대 1천여 명에 이르던 이곳 염부들이 요즘은 2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다"며 "그래도 소비자들이 우수성을 인정해줘 보람을 느낀다"고 웃었다.

한편 지난 1953년 피난민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조성된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643만㎡)의 단일 염전이며, 한해 1만5천t(30억원·전국 6%)의 소금을 생산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정재 광주교대 前 총장

학력 부실 기재 '구설수'

지난 1997~2001년 광주교대 제2대 총장을 역임한 이정재(61) 현 광주교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자신의 학력을 부실하게 관리해 구설수에 올랐다.

26일 서울대와 광주교대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1970년 당시 2년제인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1975년 서울대 사범대 교원교육원을 수료하고 고려대에서 석사, 조선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사범대 교원교육원은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원들의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 당시 수년간 운영됐던 기관으로, 이 교육원의 마지막 기수인 이 교수는 함평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1972년부터 1975년 8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방학 기간을 이용,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그의 저서 등에는 교원교육원에 대한 설명 없이 서울대 졸업 또는 서울대 학사, 서울대 수료 등으로 기재돼 있다.

한 포털 사이트 인물검색 학력란에서 그는 '1975년(졸업연도) 서울대 수학교육학 학사'로, 1994년 발행된 저서 '대학수학'에는 서울대 사범대 수학과 졸업, 학술진흥재단 인력정보조회 학위사항에는 대학과 전공이 각각 서울대와 수학교육으로 기재됐다.

광주교대 홈페이지 '역대 학장·총장'의 약력보기에는 26일 현재까지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1975)'로 학력이 소개돼 있다.

이로 인해 '이 전 총장이 학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관련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 교수는 "조교들이 포털 사이트에 나의 학력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출판사 측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이런 오해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면서 "교사 및 교수 임용이나 승진, 교육감 출마 등과 관련해 한 번도 학력을 속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운참 〈7292〉 김종두

신정아씨의 '이중 생활'

고급차 몰며 돈 '펑펑'…알고보니 개인회생 신청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난 뒤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한 신정아(여·35) 동국대 전 교수가 과중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9월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11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의 가용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다.

신씨는 서울서대문세무서와 고향인 경북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채무 1억420여만원이 있으며, '채무 불이행자'로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그러나 전세 원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재정 파탄에 직면한 사람'의 경제활동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2대1 원조교제 파렴치 어른 '덜미'

쌍나팔

○…여중·여고생과 속칭 '스리섬'(three-some)이라고 불리는 2대1 성관계를 맺은 30대 회사원 등 파렴치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덜미.

○…26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송모(37)씨 등 2명은 이달 초순께 H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광주 모 여고 1년 C(16)양과 중 3년 K(15)양을 2대1 조건으로 만나 광산지역 모텔 등에서 10만원씩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동네 선후배 사이인 C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두 명이 함께 접근하니까 아저씨들이 더 좋아해 돈을 모으기가 쉬웠다"고 진술.

○…경찰은 송씨 등 2명을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원조교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C양 등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날치기 차량에 200m 끌려가 30대 중상

26일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초등학교 앞 길에서 강모(33)씨가 1t 화물차에 탄 20대로 보이는 남자 2명에 의해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

강씨는 범인들을 잡기 위해 화물차 조수석 문을 잡았지만, 범인들은 강씨를 매단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강씨는 비아삼거리 쪽으로 200여m 끌려가다 차량 뒷바퀴에 왼쪽 발목이 깔리면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흰색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낚아챈 뒤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식물인간 아들 숨지게한 50대

주민들이 선처 탄원

담양군 창평면 주민 120명은 '진행성근이영양증'(Progressive Muscular Dystrophy·근육이 점차 위축돼 가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식물인간이 된 아들(28)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숨지게 한 같은 마을 윤모(51)씨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25일 광주 북부경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19년 동안 불치병에 걸린 두 아들을 정성스럽게 간병해 온 모습을 꾸준히 지켜봤다'며 '윤씨도 5개월 전 위암수술을 받아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먹어서는 안될 독한 맘을 먹게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장흥댐서 교사 투신

지난 25일 밤 9시9분께 장흥군 유치면 늑용리 '늑용교' 밑 장흥댐에서 광주 모 여고 교사 M(여·32)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대학교수가 꿈이었던 M씨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심한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씨가 자책하는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루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 강물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